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교육학석사(기계교육)학위논문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산업재해에 관한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특성화고 현장실습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계교육전공

최은총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산업재해에 관한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특성화고 현장실습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impact of cognitive risk perception types regarding industrial accidents during on-site internships 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2024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계교육전공

최은총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산업재해에 관한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이 예방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안동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기계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계교육전공

최은총

최은총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김창래 인

위원 안동규 인

위원 이정원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
제1절 특성화고 운영 개관	[2]
제2절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산업재해	[7]
제3절 산업재해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	[11]
제4절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	[13]
제5절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	[13]
제3장 연구설계	[15]
제1절 연구모형	[15]
제2절 설문문항	[16]
제3절 자료수집	[17]
제4절 분석방법	[17]

제4장 실증분석	[18]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8]
제2절 탐색적 요인분석	[19]
제3절 기술통계 및 신뢰도	[20]
제4절 상관관계	[21]
제5절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22]
제5장 결론	[24]
참고문헌	[26]
부록: 설문지	

표 목차

[표 1]	[3]
[표 2]	[4]
[표 3]	[5]
[표 4]	[6]
[표 5]	[7]
[표 6]	[8]
[표 7]	[11]
[표 8]	[16]
[표 9]	[18]
[표 10]	[19]
[표 11]	[21]
[표 12]	[22]
[표 13]	[23]

그림 목차

[그림 1]	[9]
[그림 2]	[15]

ABSTRACT

The study on the impact of cognitive risk perception types regarding industrial accidents during on-site internships on preventive behavioral intentions among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Choi, Eunchong

Advisor : Prof. Ahn, Dong-Gyu, Ph. D.

Major in Mechan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by verifying the effect of cognitive risk perception types o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behavioral intention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trust i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in their relationship. To achieve this purpose, a research hypothesis was derived through theoretical and relational considerations between variables, and a questionnaire was created to verify the derived research hypothesis. The produced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215 students from specialized high schools nationwide. The collected data were verified through th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proposed by Baron & Kenny (199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self-risk of industrial accidents had a statistically ver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erception of the risk of others in industrial accidents had a statistically ver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behavior. Third, the negative (-)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trust i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was verified in that industrial accident

self-risk perception affect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behavioral intentions. Fourth, the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trust i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ies was rejected in that recognition of the risk of others in industrial accidents affects the intention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behavior.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proposed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induce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behavior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Keywords: Specialized high school, field training, industrial accident, cognitive risk recognition, preventive action intention, Government Trust i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Policy

국문요약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산업재해에 관한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관한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이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함에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이론적·관계적 고찰을 통해 연구가설을 도출하였고, 도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설문지는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215명에게 배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Baron & Kenny(199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산업재해 자기위험인식은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산업재해 타인위험인식은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재해 자기위험인식이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의 음(-)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넷째, 산업재해 타인위험인식이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는 기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산업재해 예방행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했음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특성화고, 현장실습, 산업재해, 인지적 위험 인식, 예방행동의도,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

제1장 서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특성화고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로 정의하고 있다. 특성화고에 대한 시행령은 체험위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특성화고 교육과정에서 현장실습은 빠질 수 없는 교육과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이와 같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화물 엘리베이터 밖으로 떨어져서 사망하거나, 음료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 중 기계에 눌러 사망하는 등 우리는 대중매체를 통해 특성화고 노동자들의 사망보도를 이따금씩 접하고 있다. 더욱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 기간 중 실적 압박으로 저수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군 외식업체 토다원에서 취업전환형 현장실습 중 갑자기 뛰쳐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 역시 안타까움을 가중하고 있다. 특히, LG 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실습을 진행하던 실습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과 실적압박 그리고 잦은 야근이 있었다(김종하, 2017)

점입가경인 것은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현장실습은 실습 종료 후 취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처우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병욱(2017)은 현장실습의 유형 중 산업체 파견은 학생 졸업 후 해당 업체로의 취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향성으로 인해 현장실습은 곧 산업체 취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앞서 논의한 특성화고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관한 연구는 제도적인 미비를 지적하며 정책적 제안을 제시(김종하, 2017), 교사(이병욱·안재영, 2015) 또는 산학협력 담당자의 현장실습 인식(허영준, 2011), 현장실습 교육자료 개발과 적용(최은희 외 3인, 2020) 등으로 전개되어 정작 가장 중요한 학생들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더욱이, 학생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실증연구들의 대부분은 교육관련 변수에 초점을 두어 특성화고 교육의 핵심 축인 현장실습에

대한 고려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관련 변수들을 특성화고 맥락에 적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는 특성화고 학생의 심리적 특성이 학습전략, 자기주도학습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김창길·최동규, 2023), 교사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영향(고종남, 2023) 등 다양한 구성개념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이제 연구의 초점을 학생을 중심으로 특성화고의 한 축인 현장실습에서의 산업재해로 옮겨와 연구를 진행한다면 앞서 논의한 참혹한 사태들에 대한 역지력을 제고할 수 있다. 한편, 현장실습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도입되었으나, 학생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값싼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이강은 외 3인, 2022). 더욱이,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식한 학생은 59.8%에 그쳤다(김승경 외 2인, 2019).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바라보는 부정적 관점은 더욱 더 학생중심 그리고 현장실습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함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성화고 맥락의 연구는 학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육적 맥락의 변수를 활용한 연구도 의의가 있으나, 이제는 특성화고의 핵심 축인 현장실습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개인적 심리요인 중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나아가, 이들의 관계에서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를 연구한 매우 소수의 이론적 논의를 축적했다는 것과 관련 정책적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 의의가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제1절 특성화고 운영 개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운영지원센터 포털에 공개된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특성화고 수는 46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자료는 개별 학

교에서 입력한 자료는 근거로 제공되고 있다. 학교 수를 기준으로 서울 70개교, 경기 70개교, 경북 48개교, 전남 39개교, 부산 32개교, 경남 30개교, 충남 28개교, 인천 28개교, 전북 24개교, 충북 23개교, 강원 20개교, 대구 16개교, 대전 10개교, 광주 10개교, 울산 8개교, 제주 6개교, 세종 2개교 순으로 많은 학교가 포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 특성화고 학교·학급·학생 수

구분	특성화고		
	학교	학급	학생
서울	70	1,606	27,479
부산	32	746	13,593
대구	16	498	9,647
인천	28	671	11,537
광주	10	264	5,308
대전	10	303	4,598
울산	8	204	3,947
세종	2	34	565
경기	70	1,711	34,483
강원	20	287	4,609
충북	23	436	8,817
충남	28	450	8,538
전북	24	343	5,664
전남	39	562	9,570

경북	48	597	10,706
경남	30	552	9,149
제주	6	126	2,830
계	464	9,390	171,040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2011년을 기준으로 특성화고 학생 수는 337,499명 수준이었으나 2021년에 접어들어 약 41.9% 감소해 196,067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고교생 수가 1,943,798명에서 1,299,965명으로 약 33.5% 감소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학급 당 학생 수의 경우 2011년 28.6명에서 2021년 18.9명으로 9.7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연도별 특성화고 학생 수 추이

연도	특성화고 학생 수(A)	전체 고교생수(B)	특성화고 학생 비율(A/B)	특성화고 학급 수(C)	특성화고 학급 당 학생 수(A/C)
2011	337,499	1,943,798	17.4	11,798	28.6
2012	327,908	1,920,087	17.1	11,656	28.1
2013	317,445	1,893,303	16.8	11,473	27.7
2014	310,599	1,839,372	16.9	11,505	27.0
2015	299,223	1,788,266	16.7	11,288	26.5
2016	287,772	1,752,457	16.4	11,142	25.8
2017	271,446	1,669,669	16.3	10,932	24.8
2018	249,430	1,538,576	16.2	10,780	23.1

2019	227,331	1,411,027	16.1	10,628	21.4
2020	209,574	1,377,312	15.7	10,568	19.8
2021	196,067	1,299,965	15.1	10,351	18.9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

특성화고를 충원율을 기준으로 조망해보았을 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90% 이상의 충원율을 유지하다 2021년에는 89.4%로 90%대의 충원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화고에 대한 지속적 충원율 하락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진학 선호 경향,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등이 제시되고 있다.

<표 3> 연도별 특성화고 충원율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입학 정원	119, 225	113, 331	107, 400	105, 605	101, 102	98, 716	91, 582	85, 050	81, 197	76, 338	69, 663
입학자	117, 468	111, 371	107, 317	104, 086	99, 203	97, 312	88, 228	77, 534	74, 732	69, 528	62, 299
충원율	98.5	98.3	99.9	98.6	98.1	98.6	96.3	91.2	92.0	91.1	89.4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경우 2011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진학률보다 취업률이 모두 높다. 하지만 해당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취업률을 산출할 때 졸업생들 중 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단순 졸업자 대비 취업자의 비율을 따져보았을 때 그 비율은 26.42%에 그쳤다. 전문직업인 양성을 주요 목적으로 운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설립목적과 달리 지속적으로 대학

진학자가 꾸준히 많아왔던 것이다. 특히, 취업자보다 진학자가 더욱 많은 사실과 학령인구 감소와 특성화고 입학자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해를 거듭할수록 취업률이 하락국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표 4> 연도별 특성화고 진학률·취업률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졸업자	113,896	107,885	104,708	105,612	100,941	100,337	95,131	90,921	89,146	80,253	69,905
진학자	69,358	53,781	43,338	39,668	36,028	34,778	30,839	32,372	37,642	35,703	33,164
진학률	60.9	49.9	41.4	37.6	35.7	34.7	32.4	35.6	42.2	44.5	47.4
취업자	29,729	41,694	42,768	47,519	46,760	46,716	47,946	37,954	27,865	20,854	18,474
취업률	68.5	78.2	70.3	72.5	72.4	71.7	75.1	65.4	54.8	48.1	52.1

*출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2022)

**진학자와 취업자의 합계가 졸업자의 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졸업자 수에 입대자와 무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진학률의 경우 전체 졸업생 대비 비율임.

****취업률은 취업자 ÷ [졸업자 - [진학자+입대자]]로 산출함. 2020년부터는 고용, 건강보험 등 공공 DB와 연동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가 별도로 공표되고 있어, 교육통계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와 같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에 관한 최근 논의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특성화고 졸업생 67,480명 중 취업자는 18,320명으로 취업자는 전체 졸업자 중 27.1% 수준이었다¹⁾.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특성화고 졸업생들

1)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3700>

이 취업 1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표 5>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자 유지취업률

구분	본 조사 (4.1.일)	1차 유지취업률조사 (6개월 후)		2차 유지취업률조사 (12개월 후)		3차 유지취업률조사 (18개월 후)	
	보험 가입자	유지 취업자	유지 취업률	유지 취업자	유지 취업률	유지 취업자	유지 취업률
20년	20,717	15,871	76.6	13,348	64.4	12,673	61.2
21년	18,376	14,202	77.3	11,768	64.0	'23년 10월 말 공개예정	

*출처: 교육부

**조사기준일: (본조사) 당해연도 4월 1일 // (1차 유지취업률조사) 당해연도 10월 1일
(2차 유지취업률조사) 차년도 4월 1일 // (3차 유지취업률 조사) 차년도 10월 1일

제2절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산업재해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²⁾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장실습은 2018년에 근로(조기취업) 중심에서 학습(취업준비) 중심으로 그 성격이 크게 전환되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이 참여해 2023년 개정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에 따르면 이러한 전환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실습 중에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 계약(협약)만을 체결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현장실습을 운영한다. 둘째, 현장실습은 ‘노동’이 아닌 ‘배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생은 ‘노동자’가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항, 법률 제18425호

아닌 ‘학생’이다. 셋째, 현장실습생은 학생이므로, 학교와 기업은 현장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함을 의미한다.

매뉴얼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상시 모니터링, 순회지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실제 현장실습이 협약과 상이하게 운영되거나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을 저해할 요인이 발견되는 등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는 학교전담 노무사와 협력해 실습 중단, 복교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취해야 한다. 나아가, 안전보건 및 권익침해 사안이 중한 경우 교육청을 통해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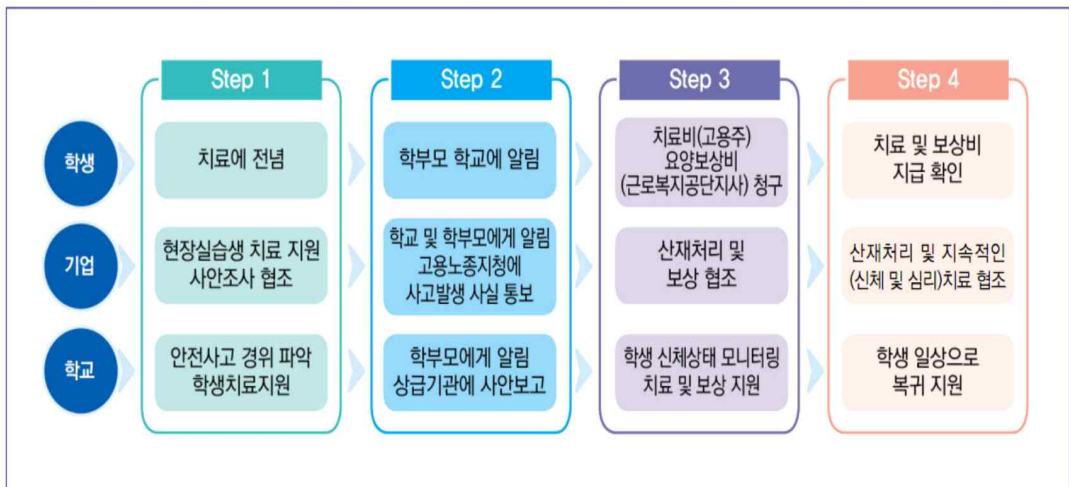
<표 6> 현장실습 운영 기준 미준수에 따른 조치 방법

사유	조치 방법
협약 내용과 다른 현장실습이 이루어진 경우	기업에 시정을 요청하고, 미반영 시 학생 의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권익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조치 후 근로감독 요청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개인적 사유로 인해 실습 중단을 요청한 경우	·학생 상담 및 기업 협의를 진행한 후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복교 여부 결정 ·현장실습 복교 의견서를 통해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 ·학생의 의사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2023)

나아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실습생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기업은 즉시 학부모와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학교와 기업은 각각 교육청과 고용노동지청에 사안을 보고하고, 학생의 신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기업은 현장실습생이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고, 교육청이나 학교의 사안 조사 및 산재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그림 1> 현장실습 안전사고 처리 절차



*출처: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2023)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이 결정되면 해당 실습생을 비롯하여 학교장, 현장실습기관의 대표이사의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해당 협약서에는 협약서의 목적, 현장실습 기간 및 장소, 현장실습방법 및 절차, 현장실습기관의 의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의무, 현장실습생의 권리, 현장실습생의 의무, 현장실습 시간과 휴식, 현장실습생 특별보호, 안전·보건상의 조치, 재해보상, 현장실습 수당 및 용품 등, 복리후생, 현장실습생의 평가, 포상, 현장실습내용의 변경, 현장실습계약의 해지, 현장실습중단 방지, 취업, 수료증명서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 특히, 안전·보건상의 조치 부분을 살펴보면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교육 실시,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 및 원재료·가스·분진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조치 등 안전·보건상 필요사항을 조치한다.』라고 하며 실

습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현장실습생의 권리 부분에서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기간 중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산업재해 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해보상 부분에서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재해보상을 한다. 다만, “현장실습기관”의 산업이 산업재해보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에 준하는 재해보상을 한다.』라고 명시하며 사고발생 시 처리기준 또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장실습생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제도적 보호 속에서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의 산업재해 및 권익침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³⁾. 먼저 최근 5년 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 발생한 권익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습시간 초과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서 부당대우 27건, 성희롱 등 24건, 야간(휴일) 실습 실시 14건, 유해 위험 업무 12건, 수당 미지급 1건 순으로 많았다. 산업재해의 경우 2018년 3건, 2019년 8건 2020년 6건, 2021년 14건, 2022년 22건으로 2020년도에 전기대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특성화고 진학률과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함께 고려해보면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미래사회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의 사회의 출발과 같은 현장실습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와 포용사회로 나아가야하는 우리의 방향성은 도태될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계속되는 죽음과 산재에 대한 방치와 방임을 극복하여 사회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속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3)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10181411001#c2b>

<표 7>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 산업재해 및 권익침해 현황

현장 지도점검 결과 및 유형별 지적사항(권익침해)								산업재해 건수	산업재해 + 권익침해
연도	유해 위험 업무	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 대우	실습 시간 초과	야간 (휴일) 실습 실시	계		
2018	0	0	0	1	2	1	4	3	7
2019	1	1	6	8	23	6	45	8	53
2020	4	0	5	9	5	3	26	6	32
2021	1	0	8	5	12	2	28	14	42
2022	6	0	5	4	5	2	22	22	44
합계	12	1	24	27	47	14	125	53	178

*출처: 교육부

제3절 산업재해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

위험이란 특정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나 위험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한다(Adams, 1995; 좌보경·윤문영·백혜진, 2013). 위험인식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위험인식을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위험 정도(노진철, 2010; 김효진·김영욱, 2013)로 정의하거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위험이 발생한 이후 결과에 대한 주관적 측정과 평과로 정의하기도 한다(김효진·김영욱, 2013). 각 개인이 동일한 현상과 맥락 또는 이슈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향유해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같은 환경적 맥락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신념, 지향점,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위험을 평가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같은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할 수도 있고 혹은 더 작게 인식할 수도

있다. 즉, 위협의 인식이라는 것은 위협빈도, 피해규모, 사상자, 상해율과 같은 양적 지표로 대변할 수 없는 개개인의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주관성을 반영하고 있다 (Graham & Rhomborg, 1996; 좌보경·윤문영·백혜진, 2013).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관한 인지적 위협은 자신의 몸의 안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강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연구들과 궤를 함께 하고 있다. 건강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이론과 연구들의 대부분은 인지적 차원에서 위협 인식에 집중했다. 인지적 차원에서 위협인식이란 개인의 지식·태도·신념·과학적 지식·친숙성 등(이영애·이나경, 2005; 좌보경·윤문영·백혜진, 2013; 차용진, 2006)이 위협의 심각성과 그 위협이 개인 또는 사회의 취약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Rosenstock(1974)은 건강신념모델을 중심으로 지각된 위협 (Perceived Threat)을 인간의 건강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주요한 신념 중 하나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지각된 위협은 다시 지각된 취약성(Perceived Susceptibility)과 지각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으로 구분된다(Nan, Underhill, Jiang, Shen & Kuch, 2012). 지각된 취약성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발생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주관적 신념이다. 지각된 심각성은 질병에 걸렸거나 나아가 그 질병을 치료하지 않았을 때 겪어야 할 유해성의 정도나 혹은 초래될 결과에 대한 지각이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을 자기 보호 행동에 동기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Nan et al., 2012; Rimal & Real, 2003), 또는 행동 변화를 촉진 하는 선결조건이라 했다 (Portnoy et. al., 2014; Walker et al., 2007).

Rosenstock(1974)의 건강신념모델은 건강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전통적인 사회인지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인지적 위협을 측정하기 위해 그 구성개념을 구분한 연구들이 지속되었다. 인지적 위협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구성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은 위협을 다차원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평가 항목을 통해 위협인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Portnoy et al., 2014). 본 연구는 위협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절대적 자기 위험 인식(Absolute Self Risk Perception)과 절대적 타인위험 인식(Absolute Risk Perception of Others)을 사용하였다. 절대적 자기 위험 인식은 특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주관적 위협이다(Portnoy et al., 2014).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위협을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나 전제는 제공하지 않는다. 절대적 타인 위험 인식은 특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

다는 느끼는 주관적 위험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1] 특성화고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인식 유형은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특성화고 산업재해에 대한 자기위험인식은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특성화고 산업재해에 대한 타인위험인식은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4절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

사회과학 연구는 실제 개인의 행동을 포착하거나 측정하기 어려울 때 의도를 통해 연구대상에 대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해왔다(Krueger, Reilly & Carsrud, 2000). 행동 의도는 실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내적 의지를 의미한다(Ajzen & Fishbein, 1980; 조성은·신호창·유선옥·노형신, 2012). 이는 특정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관련되어 “무엇을 할 용의가 있다”는 형식으로 표현된다(조성은·신호창·유선옥·노형신, 2012). 본 연구는 특성화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을 하려는 학생들의 의향으로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를 정의하였다.

제5절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

신뢰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존재하지만 합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연구적 현상과 맥락을 설명하고 풀어내기 위해 신뢰를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구성개념화한다. 그만큼 신뢰는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는 것과 같이 다의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차원의 개념이다(김현구·이승중·최도림, 2009).

Sitkin & Roth(1993)은 신뢰를 “다른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와 결과에 대한 태도와 믿음 또는 이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로 정의했다. Baber(1983)는 신뢰의 근본은 행위자들 상호간에 갖는 기대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서로 간 기대가 없다면 신뢰는 형성될 수 없다고 하였다. 정부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기를 바라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이에 부응해 국민들은 정부가 매체를 통해 내놓는 정책이나 메시지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수용성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즉, 신뢰라는 것은 제공하는 메시지를 믿고 어느 정도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주관적인 판단이다(소현진, 2013).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관리 주체는 정부 조직 기관이다. 정부 신뢰란 결국 정부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 태도이다(손호중·채원호, 2005).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란 우리 정부가 해당 정책을 펼침에 있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가 산업재해에 대한 인지적 위험 인식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정보원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했다(Hovland & Weiss, 1951).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교육의 일환이고 교육서비스의 제공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주체는 결국 학교, 교육당국, 정부가 되는 것이다. 개인의 행동과 태도는 상호작용 하는 대상이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인다. Flynn et al.(1992)은 위험관리 조직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가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개인이 느끼는 위험의 크기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험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 경우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게 된다(김영욱, 2014).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오히려 위험을 인식하더라도 위험을 예방하려는 의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안한다.

[가설 2] 특성화고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인식 유형이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가설 2-1] 특성화고 산업재해에 대한 자기위험인식이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의 음(-)의 조절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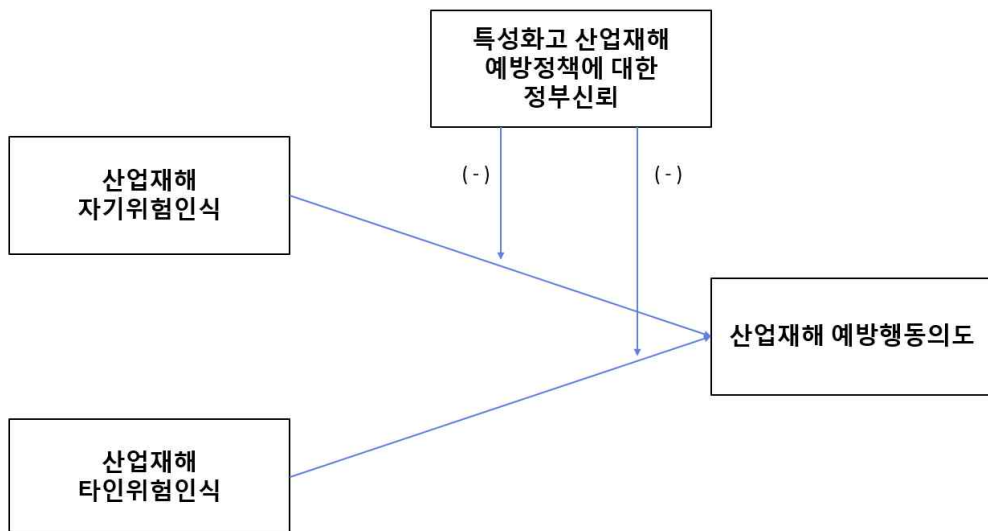
[가설 2-2] 특성화고 산업재해에 대한 타인위험인식이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의 음(-)의 조절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모형

이상의 이론적 논의 및 변수들 간의 관계적 고찰을 통해 <그림 X>와 같은 연구모형을 제안하였다. 독립변수의 경우 특성화고 관련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험인식에 관한 변수로 자기위험인식과 타인위험인식과 같이 두 개의 하위변수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의도로 채택하였고, 조절변수의 경우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 변수를 채택하였다. 조절변수와 종속변수의 경우 단일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제2절 설문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모두 검증된 문항들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산업재해 위험인식 유형의 경우 Zhao & Nan(2016), 이경진 외 3인(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산업재해 예방의도의 경우 Ajzen(2002), 유성신·박현선·진범섭(2016)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조절변수인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의 경우 양진명(2011), 유성신·박현선·진범섭(2016), 박경희(2013)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8> 설문문항

변수		문항	선행연구
위험인식 유형	자기 위험인식	응답자님은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산업재해에 노출되거나 실제로 당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Zhao & Nan(2016) 이경진 외 3인(2017)
		응답자님은 자신이 산업재해로부터 얼마나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님은 산업재해로부터 얼마나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인 위험인식	응답자님은 응답자님과 비슷한 연령 또는 성별의 사람들이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산업재해에 노출되거나 실제로 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님은 응답자님과 비슷한 연령 또는 성별의 사람들이 산업재해에 얼마나 취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님은 응답자님과 비슷한 연령 또는 성별의 사람들이 산업재해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방 의도	나는 특성화고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찾으려 한다.	Ajzen (2002)
	나는 특성화고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알게 된다면 학우(친구)들에게 알릴 것이다.	유성신· 박현선· 진범섭 (2016)
	나는 특성화고 관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칙을 잘 지킬 것이다.	
정부 신뢰	나는 우리나라 정부의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박경희 (2013)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특성화고 산업재해에 관한 예방정책에 있어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성신· 박현선· 진범섭 (2016)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양진명 (2011)

제3절 자료수집

본 연구는 경상도, 제주도, 전라도, 광주광역시 소재의 특성화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설문기간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었다.

제4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특성화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위험 인식 유형,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 변수들 간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했다. 첫째,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연구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연구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 도출해 신뢰도를 검증했다. 넷째, 연속형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간 인과관계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9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9>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163명(75.8%), 여학생이 52명(24.18%)으로 집계되었다. 학년의 경우 2학년이 42명(19.5%), 3학년 173명(80.4%)로 집계되었다. 전공의 경우 동물자원 전공 31명(14.4%), 식품가공 전공(13.0%), 해양산업 전공(19.53%), 기관시스템 전공(8.3%), 기계 전공(20.4%), 항공정비 전공(24.18%)로 집계되었다. 지역의 경우 경상도 58명(26.9%), 제주특별자치도 16명(7.4%), 전라도 108명(50.2%), 광주광역시 33명(15.3%)로 집계되었다.

<표 9>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학생	163	75.81
	여학생	52	24.18
학년	2학년	42	19.53
	3학년	173	80.46
전공	동물자원	31	14.41
	식품가공	28	13.02
	해양산업	42	19.53

	기관시스템	18	8.37
	기계	44	20.46
	항공정비	52	24.18
지역	경상도	58	26.97
	제주특별자치도	16	7.44
	전라도	108	50.23
	광주광역시	33	15.34
합계		215	(100.0)

제2절 탐색적 요인분석

산업재해 위험 인식 유형,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 요인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했다. 요인추출 방식으로 주축 요인추출을 진행했고,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요인적재값(Factor loading)이 모두 0.5를 상회하였으며, 교차요인적재값(cross factor loading)이 0.4를 초과하는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집중타당도와 판별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KMO 측도는 .821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 또한 유의확률이 .000(0.05미만)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가 확보되었다. 한편, 누적분산은 66.253%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4개 요인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0> 탐색적 요인분석

Item	1	2	3	4
자기인식2	.891	.136	.244	.076
자기인식3	.819	.176	.220	.086
자기인식1	.704	.265	.313	.075

타인인식3	.148	.868	.186	.087
타인인식2	.227	.686	.206	.005
타인인식1	.118	.669	.236	-.001
예방의도3	.272	.233	.812	.030
예방의도1	.264	.337	.746	.152
예방의도2	.344	.265	.645	.122
정부신뢰3	.107	.043	.104	.824
정부신뢰2	.068	-.045	.043	.702
정부신뢰1	.006	.072	.037	.604
KMO=.821, Bartlett's χ^2 =1397.520(p<.001)				

제3절 기술통계 및 신뢰도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와 같다. 자기위험인식의 경우 평균 3.28(SD=1.02), 타기위험인식의 경우 평균 3.22(SD=.94), 예방의도의 경우 평균 3.30(SD=.9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의 경우 평균 3.97(SD=.76)로 집계되었다. 더불어, 사회과학 연구에서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시간 간격을 두고 동일개체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조사를 통해 상관관계를 살피는 방법과 관측점수 대비 확률오차의 비중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크론바흐 알파값을 통한 신뢰도는 후자의 경우이다. 즉, 본 연구는 연구도구의 반복 측정에서 측정 값의 내적 일치도(Internal consistency)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파값(Cronbach's α)을 사용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α 값이 0.7 이상 0.8 미만 수준이면 수용가능하고 0.8 이상 0.9 미만 수준이면 좋으며, 0.9 이상이면 탁월한 수준으로 판별할 수 있다(George & Mallery, 2003). 하지만 Cronbach's α 는 문항의 수가 많을수록 또는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으로 인해 절대적

인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즉, Cronbach's α 는 특정 문항을 제거했을 때 신뢰도 값의 증감을 확인하여 연구에서 문항을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함이 적합하다. 본 연구의 경우 특정 문항을 제거하였을 때 신뢰도 값이 증가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아 추가적인 문항제거는 진행하지 않았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실증분석 과정을 통해 연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11> 기술통계 및 신뢰도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자기위험인식	215	1.00	5.00	3.2868	1.02660	.901
타인위험인식	215	1.00	5.00	3.2264	.94139	.827
예방의도	215	1.00	5.00	3.3054	.96687	.867
정부신뢰	215	1.00	5.00	3.9705	.73318	.754

제4절 상관관계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산업재해 예방의도, 산업재해 자기위험인식, 산업재해 타인위험인식,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예방의도와 자기위험인식은 $r=.594$, $p<.001$ 로 나타나 정(+)의 상관을 보였다. 예방의도와 타인위험인식은 $r=.531$, $p<.001$ 로 나타나 정(+)의 상관을 보였다. 예방의도와 정부신뢰는 $r=.191$, $p<.01$ 로 나타나 정(+)의 상관을 보였다. 자기위험인식과 타인위험인식은 $r=.421$, $p<.001$ 로 나타나 정(+)의 상관을 보였다. 자기위험인식과 정부신뢰는 $r=.166$, $p<.05$ 로 나타나 정(+)의 상관을 보였다.

<표 12> 상관관계

	예방의도	자기위험인식	타인위험인식	정부신뢰
예방의도	1			
자기위험인식	.594***	1		
타인위험인식	.531***	.421***	1	
정부신뢰	.191**	.166*	.087	1

*p<.05, **p<.01, ***p<.001

제5절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자기위험인식과 타인위험인식이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검증했다. 1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위험인식, 타인위험인식이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고, 2단계 모형에서는 조절변수인 정부신뢰를 추가로 투입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간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했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86.343, p<.001), 2단계(F=59.077, p<.001), 3단계(F=36.754,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단계에서 44.9%(수정된 R 제곱은 44.4%), 2단계에서 45.7%(수정된 R 제곱은 44.9%), 3단계에서 46.8%(수정된 R 제곱은 45.5%)로 나타났다. 한편 Drubin-Watson 통계량은 1.672로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tor: 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1단계에서는 자기위험인식($\beta=.450$, p<.001), 타인위험인식($\beta=.342$, p<.001)이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위험인식과 타인위험인식과 같은 위험인식에 대한 유형이 높아질수록 산업재해 예방행동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

설 중 [H1-1], [H1-2]을 지지하고 있다.

2단계에서는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기 예방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를 분석할 때 2단계 모형에서 조절변수의 유의성은 지지되지 않아도 무관하다. 이는 조절효과 검증의 의미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촉매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 것이지, 조절변수가 직접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자기인식과 정부신뢰에 대한 상호작용 항이 산업재해 예방의도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을 경우 자기위험인식이 예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타인위험인식이 예방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 중 [H2-1]은 지지되었다.

<표 13>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단계	변수	B	S.E.		t	p	F	(수정 R^2)
1	(상수)	3.305	.049		67.209	.000	86.343 ***	.449 (.444)
	자기인식	.435	.054	.450	8.009	.000		
	타인인식	.330	.054	.342	6.081	.000		
2	(상수)	3.305	.049		67.518	.000	59.077 ***	.457 (.449)
	자기인식	.422	.055	.436	7.715	.000		
	타인인식	.329	.054	.340	6.074	.000		
	정부신뢰	.086	.050	.088	1.719	.087		

3	(상수)	3.317	.049		67.329	.000	36.754 ***	.468 (.455)
	자기인식	.422	.054	.437	7.768	.000		
	타인인식	.327	.054	.338	6.018	.000		
	정부신뢰	.088	.050	.091	1.770	.078		
	자기인식x 정부신뢰	-.099	.048	-.111	-2.061	.041		
	타인인식x 정부신뢰	.053	.046	.062	1.131	.260		

*p<.05, **p<.01, ***p<.001

제5장 결론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서 끊임없는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직업계고 현장실습에서 발생한 권익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습시간 초과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서 부당대우 27건, 성희롱 등 24건, 야간(휴일) 실습 실시 14건, 유해 위험 업무 12건, 수당 미지급 1건 순으로 많았다. 산업재해의 경우 2018년 3건, 2019년 8건 2020년 6건, 2021년 14건, 2022년 22건으로 2020년도에 전년대비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특성화고 진학률과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와 함께 고려해보면 대조적인 상황이라고 사료된다. 미래사회를 짊어질 젊은 세대들의 사회의 출발과 같은 현장실습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와 포용사회로 나아가야하는 우리의 방향성은 도태될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이다. 현장실습생의 계속되는 죽음과 산재에 대한 방치와 방임을 극복하여 사회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속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점입가경인 것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형편 속에서도 학생들은 자신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적절한 문제제기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병욱(2017)은 현장

실습의 유형 중 산업체 파견은 학생 졸업 후 해당 업체로의 취업이 잠정적으로 결정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경향성으로 인해 현장실습은 곧 산업체 취업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형편 속에서 특성화고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현장실습을 다룬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써 특성화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위험 인식 유형이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이들의 관계에서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산업재해 자기위험인식과 타인위험인식은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수준에서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및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산업재해 예방의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주요하게 이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콘텐츠를 배포하여 자주 접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산업재해 자기위험인식이 산업재해 예방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관한 정부신뢰의 음(-)²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즉, 산업재해 예방정책에 대한 정부신뢰가 높은 학생일수록 산업재해에 대한 자기위험인식이 생기더라도 예방행동의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개인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이 대체로 낮아진다는 경향과(김우철,2017) 결합하여 생각해보면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정부신뢰가 대체로 높은 수준이라면 이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도 예방행동을 낮은 수준으로 전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산업재해는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안임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국내문헌]

- 고종남. (2023).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직업기초능력에 미치는 영향. *상업교육연구*, 37(2), 17-45.
- 김창길, & 최동규. (2023).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학생인권, 학교문화, 학교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6), 299-315.
- 김우철. (2017). 우리나라 정부신뢰 문제에 대한 이해와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23(1), 1-56.
- 김현구, 이승중, & 최도림. (2009). 정부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행정논총*, 47(3), 1-24.
- 김중하. (2017).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현실과 개선방향: 교육을 교육답게, 노동을 노동답게.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인권논문 수상집.
- 김승경·최정원·강정한 (2019). 청소년 ‘일 경험’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욱(2014). 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효진, & 김영욱. (2013).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위험 인식에서 메시지 프레이밍, 수용자의 전문성, 위험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 방사선 위험을 중심으로 한 분석. *홍보학 연구*, 17(1), 143-183.
- 노진철. (2010).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불확실성: 프레스티지호 사고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를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14(1), 99-124.

- 박경희. (2013). 정부의 공공서비스 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의 평가: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감성적 소구, 쟁점 관여도, 정부 책임성이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수용과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홍보학연구*, 17(3), 414-468.
- 소현진. (2013). 신뢰받는 블로그 콘텐츠의 특성 탐구: 파워블로그의 사용후기분석과 소비자 조사를 통하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1), 73-82.
- 손호중, & 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9(3), 87-114.
- 이경진, 진범섭, 최유석, & 한정석. (2017). 결핵에 대한 인지적 위험 인식 유형이 이슈 부각 인식, 정보 추구 의도, 예방 행위 의도에 미치는 영향: 걱정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9(4), 64-107.
- 이강은·양용진. (2022).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부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41(4), 91-118.
- 이병욱·안재영. (2015). 고졸 취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현장실습 운영 개선에 대한 교원의 인식 조사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18(2), 25-51.
- 양진명. (2011). 정부신뢰가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좌보경, 윤문영, & 백혜진. (2013). 미디어, 지각된 위험 특성, 위험 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발암물질 위험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7(4), 72-109.
- 조성은, 신호창, 유선욱, & 노형신. (2012). 결핵예방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과 공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 건강신념모델의 확장. *홍보학연구*, 16(1), 148-177.

최은희·이미경·홍진희·정혜선. (2015).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사고와 건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적용. 한국학교보건학회지, 33(3), 194-202.

이영애, & 이나경. (2005). 위험지각의 심리적 차원'. 인지과학, 16(3), 199-211.

유성신, 박현선, & 진범섭. (2016). 병행과정 확장 모델을 적용한 메르스 예방 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주관적 지식과 정부에 대한 신뢰 변인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광고홍보학보, 18(2), 237-273.

차용진. (2006). 위험인식 연구: 심리측정패러다임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토.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81-201.

허영준. (2011). 특성화고의 산학협력교육에 대한 산업체 산학협력담당자의 인식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3(4). 29-53.

[국외문헌]

Ajzen, I. (2002). Constructing a TPB questionnaire: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jzen, I.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Adams, J. (1995). Risk. Psychology press.

Barber, B. (1983). Vol. 96 of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Flynn, J., Burns, W., Mertz, C. K., & Slovic, P. (1992). Trust as a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3), 417-429.

Graham, J. D., & Rhomberg, L. (1996). How risks are identified and assessed.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5(1), 15-24.

Hovland, C. I., & Weiss, W. (1951). The influence of source credibility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Public opinion quarterly*, 15(4), 635-650.

Krueger Jr, N. F., Reilly, M. D., & Carsrud, A. L.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Nan, X., Underhill, J., Jiang, H., Shen, H., & Kuch, B. (2012). Risk, efficacy, and seeking of general, breast, and prostate cancer

Portnoy, D. B., Kaufman, A. R., Klein, W. M., Doyle, T. A., & De Groot, M. (2014). Cognitive and affective perceptions of vulnerability as predictors of exercise intentions among people with type 2 diabetes. *Journal of Risk Research*, 17(2), 177-193.

Rosenstock, I. M. (1974). The health belief model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 *Health education monographs*, 2(4), 354-386.

Rimal, R. N., & Real, K. (2003). Perceived risk and efficacy beliefs as motivators of change: Use of the risk perception attitude (RPA) framework to understand health behavior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9(3), 370-399.

Sitkin, S. B., & Roth, N. L. (1993). Explaining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legalistic “remedies” for trust/distrust. *Organization science*, 4(3), 367-392.

Walker, E. A., Caban, A., Schechter, C. B., Basch, C. E., Blanco, E., DeWitt, T., ... & Mojica, G. (2007). Measuring comparative risk perceptions in an urban minority population. *The Diabetes Educator*, 33(1), 103-110.

Zhao, X., & Nan, X. (2016). The influence of absolute and comparative risk perceptions on cervical cancer screening and the mediating role of cancer worry.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1(1), 100-108.